

보도설명자료

('20. 4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금년도 비축유 구매 예산은 314억원 규모이며, 구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(전자신문 4.3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)

- ◇ 금년 비축유 구매 예산은 기사(1천억원 규모 확대 전망)와 달리 314억원 규모이며, 구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
- ◇ 4월 3일자(가판) 전자신문 <정유사 '최악 위기' ... 정부, 전략 비축유 구매 늘린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금년도 비축유 구매 비용은 2019년 대비 갑절 이상 확대되어 어림잡아 1,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금년 비축유 구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
- ① 금년 비축유 구매비용이 어림잡아 1,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'20년 비축유 구매 예산은 총 314억원 규모임
- ② 비축유를 과거 산유국과 직거래하던 것 대신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 - 비축유(원유+석유제품) 구매는 국내 정유사를 포함하여 국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짐
- ③ 추가 비축유 저장공간이 5천만 배럴 규모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

④ 비축유 구매가 매년 비축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비축 회의라는 것은 없으며, 석유공사가 수립한 각년도 비축유 구매계획은 산업부 승인 후 산업부 고시*에 포함되어 관보에 게재됨

* 2020년도 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

※ 문의: 석유산업과 윤창현 과장/서미주 사무관 (044-203-5223)